

47 朝鮮の洪水 조선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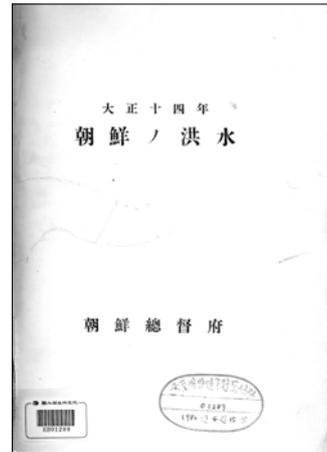
1925년 / 조선총독부 / 158면 / 11.30-05 조

이 책은 1925년, 즉 을축년(乙丑年)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다. 1926년 3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출간했는데 본문 158면에 107개에 달하는 도면과 49가지의 각종 도표 및 많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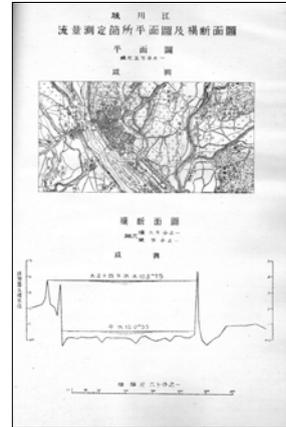
을축년 장마는 아마 20세기 최대의 홍수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홍수 하면 ‘을축년 장마’를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다. 을축년 대홍수는 1925년 7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비구름이 전후 4회에 걸쳐 남북을 오르내린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7월 11일과 12일에 낙동강유역에 큰 비를 쏟아냈고, 두 번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강유역에 큰비를 내려 대홍수를 이룩했다. 세 번째로 8월 12일과 13일에 북쪽의 청천강과 대령강 및 성천강 유역에 큰 홍수를 야기시켰고, 다시 네 번째는 9월 7일에 낙동강과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을 범람시켰다.

그러니까 54일 간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을 홍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당시 한강 인도교 수위는 7월 17일 최고 12.26m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647명이었고 부상자 등을 합하면 인명 피해는 200만 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하천별 피해를 보면 한강수계가 1위, 낙동강이 2위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다음이 경상남도 순이다. 피해액은 1억 300만 엔이었다. 이때까지 한강



에는 제대로 된 제방도 없었기 때문에 강물이 용산에 있는 철도관사를 휩쓸고, 서울역 광장까지 완전 침수했다. 당시 남대문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의 혜지를 칭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홍수 수위는 1972년 8월 19일 11.24m도 있었고, 1990년 9월 11일 11.27m도 기록되어 있으나 1925년의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세기에도 1865년과 1879년에 큰 홍수가 있기는 했으나 1925년, 즉 을축년 대홍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홍수에 관한 공식으로 '가지야마 공식'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했지만 당시 총독 부 축탁이었던 가지야마가 공식을 정립하는 데 있어 이 을축년 대홍수가 큰 자료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